東大新聞
永榮 誌 黃 人 發行
朴先九 人 郭 印刷
奇洙 幹 主
申寬 長局輯編
南 長部輯編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慶州大學
주소 : 경북월성군현곡면
금장리707(681)
전화 : 경주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부속漢方病院 드디어 開院

오는 29일 內科·婦人科등 7個科진료

東國雄飛의 一大轉機 이룩

仁術의 요람, 敎育의 場으로 정착돼야

東國雄飛의 一大轉機를 이룩하게된 「東國大學校부속漢方病院」이 오는29일 開院을 하게된다. 本校개교이래 최초의부속병원이된 한방병원은 지난 14일 입원환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의 「東國漢醫」시대를 열었다.

초음파치료기등 최신설비

이날 개원식은 오후2시 현수, 자가발전시설을 고루 갖춰 환자진료및 입상설습에 만전을 기하게 된 한방병원에서 차성종재단이사장, 黃晟永총장을 비롯 재단임원, 역대총장과 교수·학생, 동문등이 참석한가운데 삼엄한 분위기에서 거행되게 된다.

이날 개원하게될 한방병원은 맥진기, 초음파치료기 트랜섹, 고압산소 진료기등 각종 최신의료기구와 앰브 런스, 자가발전시설을 비롯 내과(肝·脾系內科), 제2내과(心肺·腎系內科), 부인과, 소아과, 신신경과, 침구과, 외관과등 7개전문분야를 개설하고 부속실로는 중문센터, 물리치료실, 응급처치실 약품관리실, 입상별리전시실, 의무기록실, 탕전실등을 갖추고있다.

한방병원의 개원은 특히 원불교의 전학이념부여과 본교의 전학이념부여과 동양의학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그 의의가 크며, 동서에서 그 의의가 크며, 동양의학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기대되고있다.

본교 한방병원 개원으로 재학생·교직원등 전 동국가족에게는 30%의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한편 한교당국은 한방병원을 명실있는 교육장으로 완공하고 시설을 계속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있다.

「취업추진委」구성

同門망라, 汎東國的 기구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선, 추진하게될 「학생취업추진위원회」가 22일 구성된다.

黃晟永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된 同위원회는 學內처장·동창회간부를 위원으로 망라, 汎東國的 기구로 확대 개편, 취업추진委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공안행정硏 학술발표회

徐載根교수등 3명연사로

공안행정연구소 주최 「제3회 공안행정학술발표회」가 지난 18일 각 주제발표 연사와 4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1501)에서 열렸다.

발표가 있었고 제3에는 金奭燁(행정대학원)교수가 「中小企業의 資金調達에 관한 硏究」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혜화관 조경사업

11月末까지 進行

학교당국은 조경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혜화관에 느티나무등을 식재하는 조경사업을 착수, 11月末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學生會館 來年 착공

8月까지 完工 예정

大慶州

경주대학 학생회관이 내년 3월에 착공되어 8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1천3백18만9백64원(천구조환)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학생복지기금은 81년 6대 홍국단(당시회장=姜柱赫)의 상당액을 비롯 81년부터 향후 5년 이내에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모금한 것으로 현재 납부중이며 12월에 부지정리, 내년3월에는 착공하게된다. 그러나 慶州大學 5대의 산재문제점이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학생회관은 11월중 완공, 내년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회관은 11월중 완공, 내년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호국단이 적립해온 복지기금

現在 1천8백만원

85년부터 장학금으로 지급예정

6代 학도호국단(81년1학기)부터 現9代(1학기)까지 학도호국단자치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온 학생복지기금(가칭)이 현재 1천3백18만9백64원(천구조환)에 이르는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학생복지기금은 81년 6대 호국단(당시회장=姜柱赫)의 상당액을 비롯 81년부터 향후 5년 이내에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모금한 것으로 현재 납부중이며 12월에 부지정리, 내년3월에는 착공하게된다. 그러나 慶州大學 5대의 산재문제점이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학생회관은 11월중 완공, 내년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회관은 11월중 완공, 내년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學生會館 來年 착공 8月까지 完工 예정

大慶州

경주대학 학생회관이 내년 3월에 착공되어 8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1천3백18만9백64원(천구조환)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理事·監事 전원 留任키로

지난10월 이사회서 결의

財團法人 東國學院 朴淇淙이사장등 理事9人과 監事1人이 지난11日의 본교 부속한방병원 개원을 거쳐 전원 유임되었다.

지난10월17일 열린 제62회 理事會는 임기만료된 理·監事의 선임건을 논의, 전원 유일한 것을 결의한 뒤 이를 문교부에 통보한 바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財團 이사의 임기는 오는 87년 11월22일까지이며 留任이사는 다음과 같다.

◇理事 ▲朴淇淙(映光) ▲高棄完(光德) ▲徐炳坤(慶州) ▲黃鎬洙(慶州) ▲黃壽永(慶州) ▲金甲洙(慶州) ▲崔惑九(慶州) ▲洪鳳來(慶州)

◇監事 ▲崔容植(明陽) ▲金昌根(慶州)

▲高棄完이사

▲吳仁甲이사

▲朴淇淙이사

▲徐炳坤이사

▲黃鎬洙이사

▲黃壽永이사

▲金甲洙이사

▲崔惑九이사

▲洪鳳來이사

▲曺益根감사

▲朴容植감사

慶州大 기말고사

28일부터 9일까지

慶州대학 교무과에선는 83학년도 제2학기 학기말고사 일정을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11일간으로 확정, 발표했다.

교무과발표에 따르면 2·3·4학년의 전공과목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교직과 교양과목은 5일부터 6일까지이다.

한편 2·3·4학년 전공과목 시험기간중 1학년은 정상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3회 現代日本詩展

경주대 일문과주최

慶州大 일어일문학과 주최 「제3회 현대일본시전」이 지난 15일~17일까지3일간 경주대 도서관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2면〉

第21回 東大新聞社 學術賞 入賞者발표

本社制定 제21회 學術賞 入賞者가 豫審및 綜合審査를 거쳐 아래같이 결정되었읍니다.

◇人文科學분야
本賞=宋香珍 (경주대 國史科 4年)
<新羅 鬼面文様에 대한 硏究>
奬勵賞=蔡明植 (文科大 國文科 4年)
<動物의 空間과 秘儀의 空間>

◇社會科學분야
本賞=해당작 없음
奬勵賞=金鍾勇 (經商大 經濟科 4년)
<不動産市場의 新古典派的 分析과 不動産投機對策>

◇自然分科學분야
本賞=李泰培 (農科大 農生科 3年)
<갈자S.tuberosum의 無病個體 急速培殖을 위한 組織培養法에 관한 硏究>
奬勵賞=金聖濱·元鍾哲 (工科大産工科)
<본교 中央圖書館 일반열람실의 照明體系 개선안>

◇創作文學분야
本賞=해당작 없음
장려一席=조민환 (文科大 國文科 2年)
詩<사일간의 航海日誌>
장려二席=김승철 (경주대 國文科 4年)
詩<窯土>

◇審査委員
人文科學분야=權寧徹(불교대) 洪起三(문과대) 李龍範(문과대)
社會科學분야=孫海晩(법정대) 吳德洙(경상대) 李順龍(경상대)
自然科學분야=李海宗(농과대) 朴春燁(공과대)
創作文學분야=詩 : 金長好(사범대) 金鳳健(詩人·現代詩學社주간)
小說 : 韓龍煕(사범대) 柳宗鎬(評論家·'梨大')

◇施賞日程
日時 : 1983年11月23日 오전11時
場所 : 總長室
※入賞者는 11月23日(水)오전10시30분까지 來社바랍니다
1983年 11月 22日
東大新聞社

學術賞 入賞者발표

新羅文化심포지움 盛了

19일, 경주대 人文社會學館서

慶州大 人文社會科學硏究所(所長 金烈圭교수)가 주최한 「新羅文化심포지움」이 지난 19일 오전10시 교내 人文社會學館 대강당에서 열렸다.

「新羅佛敎의 諸問題」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은 1·2부로 나누어 주제발표및 종합토론을 가졌다. 金煐泰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에서는 ▲李龍範(國際佛敎學硏究所長)교수의 「元曉의 法華思想」 ▲金煐泰(佛敎大)교수의 「新羅佛敎의 現身成佛觀」 ▲閔泳珪(佛敎大)교수의 「義湘의 戒律思想」 ▲金相鉉(단국대)교수의 「義湘門下의 華嚴學系譜」 등 4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관련기사 2면〉

大學院 國文科 奉先寺서 월례발표

大學院 국어국문학과 「제8, 9차 月例硏究發表會」가 지난 19·20양일간 교내 人文社會學館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는 「제10차 국어학회 전국대회」를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11월19일~11월20일=학생회관부지 고저측량 ▲11월22일~12월3일 볼링 프랜 및 브리핑 ▲12월5일~12월7일=토목설계 ▲12월5일~12월8일=토목설계및 공사발주 ▲84년1월초~1월초=토목공사완료 ▲2월1일~2월초=건축세부설계 ▲3월1일부터 건축시공.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협의하게 되는데 위원명단은 다음과같다.

◇위원장=▲黃晟永총장

◇위원=▲朴先榮학생처장 ▲權熙燮총무처장 ▲崔根培 예술원회장 ▲鄭在哲 동창회장(국회財務委員長) ▲柳根昌(林業土質試驗場장·前원호처장) ▲朴辰熙(경제학부(ノ)교수) ▲金鎔善(농조합장) ▲金昌根(ノ)교수) ▲金英吉(ノ)교수) ▲崔容植(明陽會 대표이사) ▲金聖正(변호사) ▲金聖正(변호사) ▲鄭基一 동창회 사무국장 ▲崔容植(ノ)교수) ▲李鍾浩(ノ)교수) ▲金鎔善(ノ)교수) ▲曺益根(ノ)교수) ▲金英吉(ノ)교수) ▲金龍煥(ノ)교수) ▲金昌根(ノ)교수) ▲崔惑九(경주대 국문과

短見·一時性을 버리자

—우수신입생 유치에 부쳐

사설

해마다 이맘때가되면 本校에서는 새학년도의 신입생모집에 크게 신경을 쓰게되며 수뇌부에도 그 예외는 아니겠지 같다. 지난달 학교당국이 내년도 신입생모집에 대한 윤곽을 확정 발표하였을뿐아니라 그와관련된 新入生의 장학금전형요강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이미 周知되고있는 바와 같이 국내 名大學들은 각기 우수한 신입생을 끌어들이고자 서로 보이지않는 경쟁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신입생을 위한 각종 장학금제도를 마련하고있음은 두말할것도 없거니와 名校 國家考試의 합격률과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위하여 갖가지 準備過程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內外의 저명한 자본가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열고있는 한편 홍보활동을 통해 校名을 드높이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일부학생들에서는 입학시기를 한 두어달 앞두고 하는것이 아니라 年中 수시로 보이지않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本大學의 우수신입생에 대한 유치활동은 너무 시기적으로 늦다는 感을 지울수 없다.

의료대학들은 물론정도 없고 國內의 어떤대학들보다 「新入生募集要綱」을 독립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우수신입생의 유치가 時間을 두고 어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본교는 그동안 구태의연하게 입학시기가 박두해야 비로소 신입생모집 요강을 작성하고 제때에 관심을 쏟았다고 할수 있을까 한다. 뿐만아니라 체육경기의 실력, 각종고시합격률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이 비유되고 있는 그 꼴등을 이미 벗어나 있으면서도 드러내기 조차어렵다고 하였다.

이 비유되고 法學을 장려할 목적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戒德은 四分律의 要訓가 戒德의 實踐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戒德은 四分律에 의하여 「戒經에 依止하여 威儀를 具足하고 小罪에 있어서도 怖畏를 생하여 모든 學處를 受持하는 것이 戒德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佛教修行의 大綱領을 제시한 것이다. 戒德은 佛教修行의 基礎이며 모든 修行의 根本이다. 戒德이 없는 修行은 있을 수 없다. 戒德은 修行의 出發點이며 歸着點이다. 戒德은 修行의 全過程을 一貫하는 것이다. 戒德은 修行의 全過程에 있어서 絶對的인 것이다. 戒德은 修行의 全過程에 있어서 絶對的인 것이다. 戒德은 修行의 全過程에 있어서 絶對的인 것이다.

戒德은 그의 生涯나 行蹟을 해아릴 자료가 없다. 다만 三國遺事 卷4 義解篇 義相의 10제자중의 한사람으로 되어 있을뿐 그의 전기를 알길이 없다.

또한 大唐國師의 文集16卷 「祭終南山寺故法師文」에 「……新羅大法師故終南山寺故公經……」이라 나타나 있는데 이 故法師가 義寂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義天이 菩提寺의 元曉聖師에게 菩薩戒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戒德思想을 헤아릴 수 있는 기록이 아닐수없다. 그러나 그의 戒德思想을 網羅한 戒疏가 있으므로 여간 다행이 아니다.

義寂의 戒律思想은 평범한 윤리부의자가 아니다. 신라의 많은 學僧이 戒經의 戒律을 신라의 사회적 윤리의식으로 발전시킨과 같이 義寂의 戒學도 諸師의 의견과 그 學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그의 戒律思想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菩薩戒本疏 卷上 첫머리에 「戒德의 근본은 진리가 그로말미암아 생긴다. 그와같은 까닭으로 大聖의 씨앗이 나고 正法을 이어받아 흥하게 하는것과 오랜 흐름(遠流)을 끊고 彼岸에 오르는 것과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如來는 먼저 보리수 아래서 처음 菩薩戒法을 제정하셨으니, 이것이야 말로 聖果를 고르게 하고 속박을해 탈시키는 기초요, 원을 닦고 결과를 증득하는 근본이 된다.

制止하라고 하였으므로 못 짓는다 하여 모든 善法이라 해야 할것이 아닐뿐더러 또한 三聚淨戒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義寂은

第21回 本社學術賞 自然科學分野當選作

조직 배양을 이용한 감자 S.tuberosum의 급속증식

朴春燁 <공과대교수·응용통계학>
李秉培 <농과대교수·곤충학>
李海浜

培地에 따라 培養이 成敗 크게 좌우돼
低濃度의 호르몬 처리가 增殖에 적합

조직배양은 1902년 독일의 식물학자 Haberandt가 식물의 同化組織을 배양한데서 시작되었다. 그는 1900년대 여러 식물의 꿈벌세포·軟조직의 體·술의 물질을 배양하여 보았으나 식물의 영양으로나 인공배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계속되지 못하였다. 그후 몇년간 계속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1922년 Kotte, Robbins가 Sugar, Asparagin, Peptone과 Mineral을 함유한 용액에 뿌리끝을 배양하여 생장을 촉진하였다. 1934년 White가 Yeast extract를 첨가하여 식물조직의 배양에 성공하였다. 1937년 Gautheret가 Carrot의 Cambium 조직을 배양하여 계속적인 증식을 보고하였다. 1939년 Nickell, Bergmann, Brawn, Murashige & Skoog, Eriksson 등이 각각 독자적인 배양기술을 발표하였다. 1948년 Nickell, Gautheret, White 등이 Vitamin B1을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1952년 Muir, Hildebrandt, Riker & Dugger 등이 Auxin을 첨가하여 식물조직의 증식에 성공하였다. 1955년 Miller가 Kinetin을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1958년 Steward, Pierik 등이 Coconut Milk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식물조직배양에 필요한 배양기술을 확립하였다. 1960년 Morel과 Martin이 Virus가 없는 Dahlia를 얻었다. 1965년 Murashige & Skoog, Tobacco의 Cytokinin 첨가농도 실험에서 1mg/l 이상에서 callus 증식이 억제되었다. 1966년 Steward, Pierik 등이 Coconut Milk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식물조직배양에 필요한 배양기술을 확립하였다. 1968년 Morel과 Martin이 Virus가 없는 Dahlia를 얻었다. 1970년에 이르러 영양원의 개량으로 배양기술이 많이 나아졌다. 1970년에는 감자에 관한 실험보고가 있었으며 無病種苗의 확보와 이의 식물체재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조직배양에 사용되는 培地에 있어서는 식물의 種에따라 적당한 培地가 필요하며 감자의 경우 MS (62) 배지가 적합하다고 보고한 실험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배양되는 감자의 품종에 따라 성장과 증식의 차이가 있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생장조절물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Ⅰ、緒 論

組織培養은 크게 動物 組織培養과 植物 組織培養으로 나누나 植物 組織培養은 植物體의 一部 또는 全部를 無菌的으로 人工培地에서 培養하여 植物體를 再生하는 技術을 말하며 植物 組織培養은 細胞나 組織을 培地에 植付하여 一定한 生育條件만 주면 언제든지 生産할 수 있으며 培地의 調成과 生長調節物質 (Growth Regulator)의 濃度만 調節하면 細胞의 生長을 調節할 수 있어 植物體의 再生産期를 調節할 수 있으며 無菌의 急激한 變化에 關係없이 培地에서 一定한 生育條件만 주면 언제든지 生産할 수 있으며 培地의 調成과 生長調節物質 (Growth Regulator)의 濃度만 調節하면 細胞의 生長을 調節할 수 있어 植物體의 再生産期를 調節할 수 있으며 無性的으로 종자증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감자는 Mineral 이나 Vitamin 그리고 영양가가 풍부하며 생육기간이 짧고 단위 재배면적당 생산량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돌볼 品種들은 휴면이 깊고 생식증식의 연구가 필요하나 품종마다 生長調節物質 (Growth Regulator)의 濃度와 培地에서 生長點 배양의 성공률과 바이러스의 除去率이 다르고 같은 培地에서도 生長點 배양의 성공률은 품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종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선별하여 Gibberellicacid(GA3)Kinetin의 濃度를 달리한 培地를 이용하여 조직배양하고자 하였다.

Ⅱ、研究史

組織培養은 1902년 Haberandt가 Parenchyma Theory, Totipotency Theory를 기초로 하여 1902년 독일의 식물 생리학자 Haberandt가 식물의 同化組織을 배양한데서 시작되었다. 그는 1900년대 여러 식물의 꿈벌세포·軟조직의 體·술의 물질을 배양하여 보았으나 식물의 영양으로나 인공배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계속되지 못하였다. 그후 몇년간 계속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1922년 Kotte, Robbins가 Sugar, Asparagin, Peptone과 Mineral을 함유한 용액에 뿌리끝을 배양하여 생장을 촉진하였다. 1934년 White가 Yeast extract를 첨가하여 식물조직의 배양에 성공하였다. 1937년 Gautheret가 Carrot의 Cambium 조직을 배양하여 계속적인 증식을 보고하였다. 1939년 Nickell, Bergmann, Brawn, Murashige & Skoog, Eriksson 등이 각각 독자적인 배양기술을 발표하였다. 1948년 Nickell, Gautheret, White 등이 Vitamin B1을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1952년 Muir, Hildebrandt, Riker & Dugger 등이 Auxin을 첨가하여 식물조직의 증식에 성공하였다. 1955년 Miller가 Kinetin을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1958년 Steward, Pierik 등이 Coconut Milk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식물조직배양에 필요한 배양기술을 확립하였다. 1960년 Morel과 Martin이 Virus가 없는 Dahlia를 얻었다. 1965년 Murashige & Skoog, Tobacco의 Cytokinin 첨가농도 실험에서 1mg/l 이상에서 callus 증식이 억제되었다. 1966년 Steward, Pierik 등이 Coconut Milk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식물조직배양에 필요한 배양기술을 확립하였다. 1968년 Morel과 Martin이 Virus가 없는 Dahlia를 얻었다. 1970년에 이르러 영양원의 개량으로 배양기술이 많이 나아졌다. 1970년에는 감자에 관한 실험보고가 있었으며 無病種苗의 확보와 이의 식물체재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조직배양에 사용되는 培地에 있어서는 식물의 種에따라 적당한 培地가 필요하며 감자의 경우 MS (62) 배지가 적합하다고 보고

新羅鬼面紋樣에 대한 硏究

필자는 귀면에대한 이두가지의 대표적인 설 중에서 「도철론」설이 보다 설득력이 강하지않다하는 생각을 가지고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중국에서는 이미 燕·趙때에 귀면와가 출토되고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고구려시대 이전의 귀면와가 출토된 예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귀면와가 중국에서 주로 궁전이나 성문에 장식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중국에서는 귀면와가 대부분 전국시대 말기에서 한대에 걸쳐 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로 귀면와가 중국에서 가장 성행하였던 시기는 한대이며 그 이후 점차 쇠퇴하여 당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때 귀면와가 중국에서 가장 성행하였던 시기와 우리나라에 귀면와가 전래된 시기와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귀면와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귀면와가 중국의 귀면와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우리나라 귀면와의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 귀면와의 기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논술하고자 한다。

Ⅰ、머리말

우리나라의 공예품과 고대유물에는 다양한 문양이 시문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주목을 이루는 것은 연화·당초문을 중심으로한 식물문양과 더불어 「鬼面」문양을 들 수 있다。 귀면문양은 삼국시대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그모습을 드러낸 이후 와전·금속공예를 비롯한 각종 유물의 장식에 사용 되어 왔다。 귀면문양이 이렇듯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당시의 생활습속이나 사상과 밀접한 관계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귀면문양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는 결코 충족 하다고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삼국시대로 부터 현대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경주를 중심으로한 신라의 유물·유적만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귀면문양이 시문된 유물은 공간적으로 고구려·백제·신라의 영역을 망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삼국시대로 부터 현대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경주를 중심으로한 신라의 유물·유적만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귀면문양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는 결코 충족 하다고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특히 귀면문양이 시문된 유물의 종류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고는 아직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기왕의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 내지 유래를 일단 정리하여 보고자한다。 또한 귀면의 용례에 있어서는 「瓦·塼」·「문고리」·「神將像」·「마구및 장식구」·「벼루발」 등의 유물로 나누어서 그것의 특징과 대략의 제작시기를 추정하여 보는 작업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귀면문양이 시문된 유물은 공간적으로 고구려·백제·신라의 영역을 망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삼국시대로 부터 현대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경주를 중심으로한 신라의 유물·유적만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귀면문양이 시문된 유물은 본고에서 고구려·백제·신라의 영역을 망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삼국시대로 부터 현대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경주를 중심으로한 신라의 유물·유적만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귀면문양이 시문된 유물은 공간적으로

제2회 本社學術賞 人文社會分野 당선작

갑時代別 文樣史연구에 貴重자료 價値지녀

鬼面瓦·鬼目文瓦는 고려후기 건축물에 나타나

경주대 국문과 조 민 환

1、序論

이 귀면은 6세기의 뛰 분양에 의 고리를 입에 물고 있고 똑한 코 그리고 송곳니와 있어 어떤 용도의 귀면보다 악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 주는듯하다.

⑤鷹鴨池 (圖2-⑤)

이 못가는 鷹鴨池에서 출토되어 현재경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귀면은 눈·코·입을 중심으로 안면을 강하게 표현하였으며 육중함도 상당히 실한 것으로 귀면의 本體를 매우 的確하게 나타낸 작품이라 하겠다.

이 귀면 문고리는 어디에 부착되어 사용되었던지는 잘 알수 없다. 그러나 재료가금동이며, 고리의 크기가 작은편이고 또 고리의 형태와 조각수법으로 보아서 대단히 호화로운 유물이라 말 할수 있다. 또한 안압지의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금동 삼존불이나 다수의 금동 광배편등의 출토유물과 상국유사의 기록등을 상기하여 볼 때, 안압지에는 內帑藏等이 존재하였으며, 이 內帑藏은 彫刻하기 용의였으리라는 점은 한게 작작이 가는 일이다. 또불여 이 귀편은 안압지 발굴시 같이 출토된 圖1-②의 귀편와 조각수법이 거의 비슷하며, 더우기에 주연부만 살일한다면 귀편으로 볼수 있을 정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⑥慶州皇南洞 오릉석탑 문비장식(圖2-⑥)

경주황남동 오릉석탑의 제1탑신 사면에는 좌우면에 인왕상을 새기고, 그 중앙의 문비장식으로 귀편 문고리가 조각되어 있다. 이 귀편의 일안에는 몇개의 외짤과 송곳니가 표현되어 있으며 고리도 달려있다. 이귀편문고리는 塔身의 한편에 2개씩 장식되어 총 8개가 조각되어 있는데 각기 그 문양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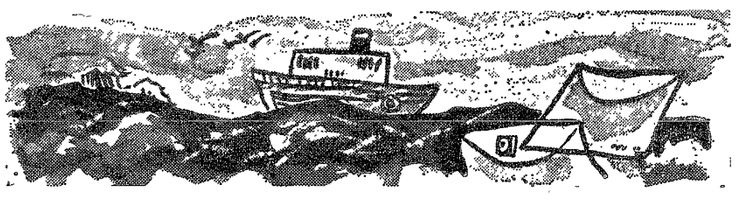
탑의 문비장식에 귀편이 조각되어진 것은 사리를 제1탑신에 봉안한다는 뜻에서 되어진듯하다. 함께번에 쏟아져 내리는 햇빛의 彈丸을 아마에 찌으며 배를 뛰운다. 창룡 창룡 뱃전에 갈기는 돌보라의 浩歌. 씻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활해서 쫓다. 바람이 분다. 펄럭이는 내 절망의 끝으로 불타오르던 激氣. —삶아겠다. 필사적으로

—序—

조 민 환

席1 장려

열흘 浦口를 걷는다. 잠자지서 허리잘린 채 뚜벅 뚜벅 걸어오는 설아침이다. 함께번에 쏟아져 내리는 햇빛의 彈丸을 아마에 찌으며 배를 뛰운다. 창룡 창룡 뱃전에 갈기는 돌보라의 浩歌. 씻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활해서 쫓다. 바람이 분다. 펄럭이는 내 절망의 끝으로 불타오르던 激氣. —삶아겠다. 필사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바다새 한 마리
어딘가에 알을 낳고 있다.

—이 틀—

할머니, 당신 죽음은 예뻤요. 무우꽃 널린 들판에서 솔플처럼 날아오르던 흰 나비 노랑나비 떨결 죽음의 꽃가루가 저승에서 죽은 사람들을 또 다시 울려도 할머니, 당신 죽음은 예뻤요.

지금 바다는 원릇원릇 돌을 내치며 웃고 있어요. 아 그날도 은동 흰 것 뿐이었어요. 흰 수의, 흰 상복, 흰 초연통의 행렬속으로 관을 메고 가던 건장한 사내들.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겪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그토록 아름답게 죽을수 있을까 하는 유혹. 유혹의 아름다움.

그러나 아직은 살아야 해요.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바다 하나를 건너야 해요. 오래 오래 할 머니. 당신 죽음은 예뻤어요.

—사 흘—

우린 종이 되어 만났었다.
바람부는 날마다
자, 흔들리며 앙수. 앙수.
손 시리게 푸른 앙수를 나누며
조금씩 딴뜻해졌었다.
밤이 되면 눈감고
더욱 확실히 보이는 어둠 아래서
뜨겁게, 뜨겁게 사랑했었다. 그리하여
아침이면 그대들 발가락에 몰아나는
땀이며 눈물을
햇빛 떨기속에 담아
서로의 눈동자에 깊이 묻어놓고
영원히 눈멀었다.
귀가 파랗다.
바다가 바다로 들린다.

—마지막 날—

먼데서 불덩이 흘들리다
—살아겠다. 필사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바다새 한 마리
어딘가에 알을 낳고 있다.

—이 틀—

할머니, 당신 죽음은 예뻤요. 무우꽃 널린 들판에서 솔플처럼 날아오르던 흰 나비 노랑나비 떨결 죽음의 꽃가루가 저승에서 죽은 사람들을 또 다시 울려도 할머니, 당신 죽음은 예뻤요.

지금 바다는 원릇원릇 돌을 내치며 웃고 있어요. 아 그날도 은동 흰 것 뿐이었어요. 흰 수의, 흰 상복, 흰 초연통의 행렬속으로 관을 메고 가던 건장한 사내들.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겪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그토록 아름답게 죽을수 있을까 하는 유혹. 유혹의 아름다움.

그러나 아직은 살아야 해요.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바다 하나를 건너야 해요. 오래 오래 할 머니. 당신 죽음은 예뻤어요.

—사 흘—

우린 종이 되어 만났었다.
바람부는 날마다
자, 흔들리며 앙수. 앙수.
손 시리게 푸른 앙수를 나누며
조금씩 딴뜻해졌었다.
밤이 되면 눈감고
더욱 확실히 보이는 어둠 아래서
뜨겁게, 뜨겁게 사랑했었다. 그리하여
아침이면 그대들 발가락에 몰아나는
땀이며 눈물을
햇빛 떨기속에 담아
서로의 눈동자에 깊이 묻어놓고
영원히 눈멀었다.
귀가 파랗다.
바다가 바다로 들린다.

—마지막 날—

먼데서 불덩이 흘들리다
—살아겠다. 필사적으로

오늘 내 絕望時代의 愛人이여
보았다. 저렇게 많은 돌이
얽어서고 쓰러지기 위하여
철철하게 바다속으로 걸어가고 있을을
그대 알몸인 채
부끄럼없이 손아올라
뼈전에서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을을
갑판에서 바람을 자르며
지난온 바다보다
더욱 푸르게 찢겨있을내 航海의
마지막 바다를 좇고 있다.
오오, 그러나 사랑하는 愛人이여
아직 죽어있는 愛人이여
무수히 復活하라. 그리하여
희디 흰 꿈을 꾸어라.

<女大 국문과>

제21회 本社 學術賞 創作分野 장려상

장려 2席

客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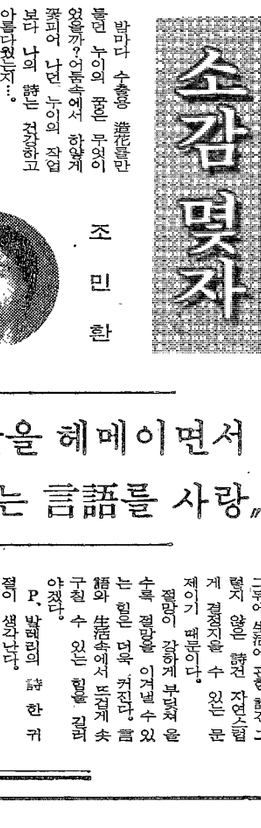
김 승 철

쑥부쟁이
잘이 뿌리채 뽑힌
붉은 속살의 무더기
네 속살의 깊이는
堅固한 부드러움이었다.

눈 먼 근육이 만든
하루살이 무덤
깊게 깊게 갈아 엎어라
피, 삭혀지는
삭혀지는
피, 뿌려도 돋워지지않는
마른 네 가슴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엇이 여기서
이렇듯 아프게 무너지고 있느냐.

깊게 깊게 갈아 엎어라,
삭혀지는 피
山과 들
예전부터 만나던
를

콤어헤친 곳
언 몸 콜며 청보리 퍼렇게
자라고 있다.



핵빛과 바람으로만
퍼렇게 불 붙지 못하는
이 척박한 땅
돌무더기에
어디서 낯설게 실려와
탱탱하게 조인
赤貨의 눈시울에
무엇이 이름없는
古墳群으로 쌓여지느냐

언제나 침묵이고
들아오지 않는 땅의 노래
경똥처럼 자라는 성긴
네 가랑이에
얼마만큼의 피로 돌우어야 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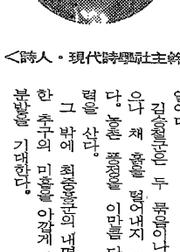
질경이

<경주대 국문과>

장려 2席

詩를 가리며

金長好 <詩人·사범대학장>
全鳳健 <詩人·現代詩學社主幹>



詩의 있은 시 언저리에 있다. 뿐 기 難解가 없으면 시가 아니다. 이 소박한 논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판이다.

조민환의 감정은 상당하다. 그러나 타고 난 감성도 언어의 바닥을 헤어지지 못하면 갈아엎고 만다. 良質의 시 속에서 그 감정을 갈아엎어 당선작을 찾아내지 못한 이유도 그것

제21회 本社學術賞 社會科學部門 當選作

不動産시장의 新古典派的分析과 投機對策

金 鍾 郁

第一章 序論

第一節 硏究目的

韓國經濟에서 解決이 어려운 問題가운데 住宅의 需給不均衡과 이로 因한 地價의 暴騰은 많은 사람들의 關心事가 되어 왔다. 이러한 住宅問題는 都市人口의 急增과 이에 따른 住宅需要의 增加에 그 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不動産投機에 起因하는 地價의 暴騰이 問題를 더욱 深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不動産投機는 不動産이 가지는 資産으로서의 特性에 基因하는 것으로 이러한 投機가 存在하는 한 住宅問題의 解決은 期待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不動産投機의 原因을 究明하고 이에 對한 適切한 對策을 講究하는 것은 經濟政策上 重要한 課題의 하나라고 하겠다.

第二節 硏究方法

不動産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土地와 이에 부착되어 있는 施設物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不動産이 가지는 特性은 一般的으로 土地의 特性과 施設物의 特性으로 區分하여 說明되고 있다. 그런데 不動産投機의 問題를 다룸에 있어서는 土地의 特性만이 重要한 意味를 가지게 되므로 本稿에서는 土地의 特性만을 考察의 對象으로 삼기로 한다.

不動産投機의 問題를 다룸에 있어서는 古典派經濟學의 立場에서 接近하는 方法과 新古典派의 立場에서 接近하는 方法이 있다. 前者는 土地를 資本의 一種으로 보고 地代를 資本의 限界生産力으로 說明하는 데 對하여 後者는 土地를 資本과 區別하여 土地의 特殊性을 重視하고 地代를 土地의 稀少性에 基因하는 獨占的 利得으로 說明하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兩者의 見解를 比較檢討하여 現實經濟에 보다 適合한 見解를 採擇하여 이를 土台로 하여 不動産投機의 問題를 分析하고 이에 對한 適切한 對策을 講究하고자 한다.

第三節 硏究範圍

不動産投機의 問題를 다룸에 있어서는 古典派經濟學의 立場에서 接近하는 方法과 新古典派의 立場에서 接近하는 方法이 있다. 그런데 本稿에서는 이 兩者를 모두 考察의 對象으로 삼기로 하였다. 그리고 結論으로 對策을 提示해 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硏究範圍의 設定은 現實經濟에 있어서 土地와 住宅의 關聯統計資料를 入手하기 어렵다는 點을 考慮하여 本稿에서 取扱하는 範圍를 限定하였다.

第二章 不動産市場의 新古典派的 分析

第一節 土地市場

新古典派理論에서는 土地市場에 對한 分析을 資本市場理論으로 代身하고 있다. 즉 土地를 資本의 一種으로 보아서 資本市場理論으로 土地市場을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立場에 對하여 本稿에서는 이러한 觀點을 論究하는 것이 本稿의 硏究範圍를 局限하고자 하였다.

1. 資本으로서의 土地의 供給

不動産投機를 生起하고 있다고 하는 主因이 무엇인가? 그것은 土地와 이에 부착되어 있는 施設物이 가지는 特性에 있다고 하겠다. 土地와 施設物의 特性에 對한 硏究는 古典派經濟學의 立場에서 接近하는 方法과 新古典派의 立場에서 接近하는 方法이 있다. 그런데 本稿에서는 이 兩者를 모두 考察의 對象으로 삼기로 하였다. 그리고 結論으로 對策을 提示해 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硏究範圍의 設定은 現實經濟에 있어서 土地와 住宅의 關聯統計資料를 入手하기 어렵다는 點을 考慮하여 本稿에서 取扱하는 範圍를 限定하였다.

第三節 硏究範圍

不動産投機를 生起하고 있다고 하는 主因이 무엇인가? 그것은 土地와 이에 부착되어 있는 施設物이 가지는 特性에 있다고 하겠다. 土地와 施設物의 特性에 對한 硏究는 古典派經濟學의 立場에서 接近하는 方法과 新古典派의 立場에서 接近하는 方法이 있다. 그런데 本稿에서는 이 兩者를 모두 考察의 對象으로 삼기로 하였다. 그리고 結論으로 對策을 提示해 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硏究範圍의 設定은 現實經濟에 있어서 土地와 住宅의 關聯統計資料를 入手하기 어렵다는 點을 考慮하여 本稿에서 取扱하는 範圍를 限定하였다.

第二章 不動産市場의 新古典派的 分析

第一節 土地市場

新古典派理論에는 土地市場에 對한 論이 없다. 즉 土地를 資本의 一種으로 보아서 資本市場理論으로 土地市場을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立場에 對하여 本稿에서는 이러한 觀點을 論究하는 것이 本稿의 硏究範圍를 局限하고자 하였다.

1. 資本으로서의 土地의 供給

(1) 資物資本으로서의 土地의 供給量 資物資本으로서의 土地의 供給量은 다음과 같이 一定하다고 假定하는 것이 通例이다. 즉 資物資本으로서의 土地의 供給量을 Q_K, 그리고

63년설립…만20년의 「외국어교육원」

效率的 운영 아쉽다

英語일변도 止揚돼야
요필識再認 아낮率用利

국제적 교류가 증장됨과 함께 각 학교에서 외국어 습득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국제화시대에 낙오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미 중등교육에서 부터 실시해온 영어교육은 이 팽배한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

本校에서도 20년전부터 大學人의 교양과 전공으로서 어학능력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외국어교육전담기구로 「외국어교육원」을설치, 운영해오고있고, 한편으로 학생자체內의 특별활동으로 1년간 교양과목으로서 영어회화 커리큐럼로 실시중에 있음을 볼때 「외국어교육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크다고 할수 있겠다.

◇교재및 시설

1학년 교양과목 커리큐럼중 영어회화 실습을 위한 「아디오 시스템」을 갖춘 강의실로 2개가 있으며, 현상 개발되어 있는 청각센타가 있다.

총 좌석수는 2백24석으로 「아디오실습」의 경우 64석인데, 교재로는 「Every day English」(미멀렌젤젤젤) 「New English Course」가 있는데 학기당 18석이 있는데 학기당 1권로 결정하고 있다.

◇외국인 교수및 특강문제

이러한 미비점은 特講을 맡고있는 外國人교수와 강사분제에 있어서도 그 缺點이 나타난다.

현재 회화특강을 맡고있는 강사로는 本校의 자매校인 E·W大의 교환교수 1人과 2명의 전임 의국인강사가 있다.

이렇게 숫적으로 부족한것을 보강하려면 학교당국과 「외국어교육원」은 기존의 부족한 시설일에 에산상의 분제에 봉착하게된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외국어 교육원은 전문강사 확보

1984學年度 前期(男·女)

동국대학교 新入生募集 요강

1, 모집구분 및 인원

서 울 本 校

대학	계열구분	졸정	입원	학 과	입인	학원
불교대학	인 문		80	불교학과		52
				인도철학과		26
				선학과		26
	예·체능		40	미술학과		52
문과대학	인 문		300	국어국문학과		52
				영어영문학과		65
				영어영문학과(야)		65
				독어독문학과		39
				일어일문학과		39
				사학과		39
				철학과		39
				국민윤리학과		52
	예·체능		30	연극영화학과		39
이과대학	자 연		160	수학과		52
				물리학과		52
				화학과		52
				통계학과		52
법정대학	인 문		190	법학과		78
				정치외교학과		39
				행정학과		52
				경찰행정학과		39
				사회개발학과		39
경상대학	인 문		470	경제학과		52
				경제학과(야)		65
				무역학과		52
				무역학과(야)		104
				경영학과		61
				경영학과(야)		121
				회계학과		60
				회계학과(야)		96
농과대학	자 연		90	농학과		39
				임학과		39
				농업생물학과		39
	인 문		30	농업경제학과		39
공과대학	자 연		425	전자공학과		52
				전자계산학과		52
				전자계산학과(야)		104
				전기공학과		39
				토목공학과		52
				건축공학과		52
				화학공학과		39
				식품공학과		46
				산업공학과		39
				산업공학과(야)		78
사범대학	인 문		170	국어교육학과		52
				국사교육학과		65
				교육학과		52
				지리교육학과		52
	자 연		85	수학교육학과		58
	예·체능		40	가정교육학과		52
				체육교육학과		52
서울본교 합계			2,110			2,743

慶 州 大 學

대학	계열구분	졸정	입원	학 과	입인	학원
경주대학	예·체능		40	불교미술학과		52
	인 문		490	국어국문학과		130
				영어영문학과		169
				일어일문학과		65
				중어중문학과		52
				한문학과		52
				국사학과		117
				고고미술사학과		52
	인 문		510	법학과		78
				행정학과		78
				경제학과		117
				무역학과		111
				경영학과		117
				회계학과		110
				관광경영학과		52
	자 연		60	환경조경학과		78
			80	한의예과		96
			80	수학교육학과		52
				가정교육학과		52
합 계			1,260			1,630

2. 응시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로서 1984학년도 문교부 시행대학입학 학력고사를 거친자
나.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다.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편입학하여 졸업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나. 다항은 문교부장관이 추천한자

3. 전형방법

가. 인문계열, 자연계학과의 성적배점
대학입학학력고사성적및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다음의 비율로 배점하여 전형한다

구 분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합 계
비 율	70%	30%	100%
배 점	340점	145·7점	485·7점

나. 예·체능계학과
대학입학학력고사성적·고등학교내신성적및 실기고사성적을 다음의비율로 배점하여 전형한다
1) 미술학과, 불교미술학과

구 분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실기고사성적	합 계
비 율	20%	30%	50%	100%
배 점	340점	510점	850점	1,700점

①서울본교 미술학과의 실기고사는 공통실기와 선택실기로 구분하며, 공통실기는 석고데상으로하고 선택실기는 수채화, 채색화, 소조, 정밀묘사중 택일한다.
②경주대학 불교미술학과의 실기고사는 공통실기와선택실기로 구분하며 공통실기는 석고데상으로 하고선택실기는 수채화, 채색화, 정밀묘사중 택일한다.
※서울본교 경주대학 공히 실기고사의 성적은 공통실기 400점, 선택실기는 450점으로 배점한다.
2) 연극영화학과, 체육교육과

구 분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실기고사성적	합 계
비 율	30%	30%	40%	100%
배 점	340점	340점	454점	1,134점

①연극영화학과의 실기고사는 화술, 연기, 용모, 감성테스트, 연예상식및 특기로 한다.
②체육교육과의 실기고사는 일반체능고사와 기능고사로 한다.
다. 복수지망
1)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 동일계열에 한하여 제3지망까지 허용한다.
2) 예·체능계의 복수지망은 허용하지않는다.
라. 특별전형
1)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을허가하며 각 학과졸업정원의 30%이내에배정선발한다.
2) 체육 고교 출신자특별전형 : 체육고등학교 출신자로서 체육교육과에 응시할 경우 모집인원의 10%이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한다.
3) 사정전형 인원에 미달이 있을 경우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마. 1) 사정인원최종 및 자연계학과는 학과별 모집인원 전원을 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으로 제1지망자 중에서 80%를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제1지망 탈락자, 제2지망자, 제3지망자중에서 감점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 예체능계학과는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 고등학교내신성적및 실기고사 성적으로 전원 선발한다.
3) 서울본교, 경주대학은 본관 사정하여선발한다.
4) 야간과정 : 개설학과의 전형은 주·야 구별하여 사정한다.
5) 대학입학 학력고사 자연계 계열은 제1지망 탈락자, 제2지망자, 제3지망자중에서 감점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만, 경주대학 한의예과는 제외한다.)
6) 면접은 면접카드에 「가·부·미응시」로 표기하고 「부」와 「미응시」는 불합격으로 한다.
7) 입학지원자중 입학 전형 성적이 다른 입학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불허할수 있다.

4. 입학전형 일정

가. 입학요강교부 : 1984년 1월 2일 (월) ~ 1월 9일 (월) (서울본교·경주대학 동일)
나. 원서 접수 : 1984년 1월 5일 (목) ~ 1월 9일 (월) (서울본교·경주대학 동일)
1) 우편접수는 1월 9일 (월)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원서에 한하여 접수함.
2) 토요일·공휴일도 평일과 같이 입학원서접수함.
다. 교부 및 접수처
1) 서울본교 : 서울중구필동3가26번지 동국대학교 교무과
2) 경주대학 : 경북월성군현곡면금장리707번지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교무과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매
2) 학교장 추천서 1매 (사범대학 지원자에 한함)
3) 전형료 : ①일반계 7,000원 ②예·체능계 10,000원
※입학요강대 300원

6. 전형일시 (서울본교·경주대학 동일함)

1) 수험생전체예비소집 : 1984년 1월13일 (금) 오전10시
서울본교 : 본교 대운동장
경주대학 : 경주대학 운동장
2) 전체입학전형 (면접) : 1984년 1월13일 (금) 오후1시
서울본교 : 본교 강당 및 교사장
경주대학 : 경주대학 강당 및 교사장
※경찰행정학과·한의예과 및 체맹검사 대상학과는 면접후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함.
3) 예·체능계실기고사
㉮대상자 예비소집 : 1984. 1. 15(일)오전10시
서울본교 : 본교 중강당
경주대학 : 경주대학 소강당
㉯비 공통관리학과 실기고사 : 1984. 1. 16(월)~1. 17(화) 오전10시
㉰공통관리학과 실기고사 : 1984. 1. 16(월)~1. 21(토) 오전10시

7. 합격자발표

1984. 1. 20(金)오후4시이전(예·체능계 : 1984. 1. 23(月) 오후4시 이전)

8. 장학종류

가.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금	구분	지 급 조 건	장학액수	지급대상인원	비 고
명 진 장 학	서울본교	학력고사 전국순위 5,000등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1등급자로 학력고사 전국순위 10,000등 이내자	학 기 당 250만원	100명	학기말 성적이 A⁻이상을 계속 유지할 경우 졸업시까지 지급하며 B⁺이상을 계속유지할 경우는 학림장학을 지급함
	경주대학	학력고사 전국순위 10,000등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1등급자로 학력고사 전국순위 15,000등이내자	학 기 당 200만원		
학 림 장 학	서울본교	학력고사 전국순위 10,000등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2등급 이상으로 학력고사 전국순위 20,000등 이내자	학 기 당 200만원	150명	학기말 성적이 B⁺이상을 계속유지할 경우 졸업시까지 지급함
	경주대학	학력고사 전국순위 20,000등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2등급이상으로 학력고사 전국순위 25,000등 이내자	학 기 당 150만원		
혜 화 장 학	서울본교	학력고사 전국순위 20,000등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3등급이상으로 학력고사 전국순위 30,000등 이내자	학 기 당 100만원	200명	〃
	경주대학	학력고사 전국순위 30,000등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3등급이상으로 학력고사 전국순위 35,000등이내자	학 기 당 100만원		
동 국 장 학	서울본교	학력고사 전국순위 30,000등이내자	학 기 당 80만원	300명	〃
	경주대학	학력고사 전국순위 35,000등이내자	학 기 당 80만원		
일 반 장 학	서울본교	본교 장학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함		900명	
	경주대학	본교 장학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함			

①한의예과는 서울본교 지급조건에 준하되 동국장학은 제외함.
②본교 대학교 입학전형합격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대상자수가 지급대상인원보다 초과한경우는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함.
③장학생은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함.
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등록장학회장학금등 100여종
※기타 : 상세한 문의사항은 서울본교 교무과(☎8723)및 경주대학 교무과(②01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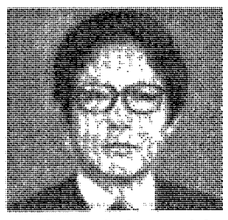
서울本校 : 우편번호100 서울특별시 중구필동3가26 ☎8131~9
경주대학 : 우편번호681 경북월성군현곡면금장리707 ②0131~6

東國大學校

고키리 <31>

尹時林

韓 龍 煥 <師範大교수·小說家>



柳 宗 鎬 <梨大교수·평론가>

"文學, 관습의 토대 위서 이뤄지는것"

제21回 本社 학술상 창작부문(소설) 심사평

한는 이 작품의 셀프패러디적 전개으로 펼어드리고 있다.

「迷路」(김기주)는 정상과 이상의 모호한 경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작품의 결정적인 흠은 다루고 있는 제재나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이 너무 흔한 것이라는 데 있다. 주인공의 고뇌나 그에게 동정하는 간호부의 심리에 설득력이 결여있다는 결점도 아울러 지적된다. 좋은 문장을 가지고도 삶과 세계를 보는 상투화된 안목을 채 신기지 않고는 좋은 작품은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귀뚤 수 없는하루」(조중중) 역시 문장은 무난하다 그러나 이 작품도 제재를 소화하는 안목이 너무 상투적이고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장황하다. 특히 동물의 상징 부분은 생략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전부정으로 작품들의 수준이 당선작을 내기에는 미흡하다는데 우리는 동의했다. 더많은 분발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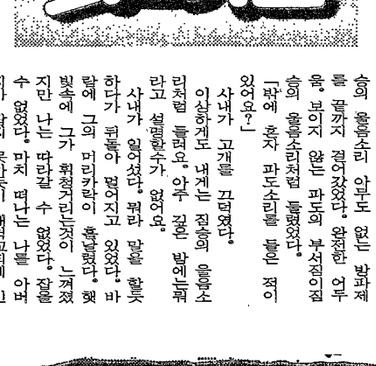
「지당타…」

「그래요. 자우지오. 우린는 아니, 나는 전혀 자유스럽지 못했으니까요. 가냘픈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에서 자랐지요. 제페르함어버저럼, 신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구속했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모든 걸 빼앗고도 감사하라고만 했어. 나는해 낼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지요 자살이었어요. 나는 뛰쳐 나왔지요.

쓰기 공부에 우선해야 할 것이 읽기공부일 것이다. 문학은 개개인의 독창적인 창조이지만 동시에 관습의 토대위에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읽기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강조해 두고 싶다.

「물욕수니」(조화권)는 속도있는 전개와 과장한 생략이요 청된다. 사춘기의 갈등이나 세대간의 대립이 실감없이 전개되어 있다.

「삘」(김인호)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읽히는 편이다. 그러나 주제의 불투명성과인물들의 지나치게 기이한 심리가 이 작품을 산책품리고 있다. 특히 후반부의 변



연재소설

〈다섯〉

받이었죠. 갈 데가 없었어요. 친구들 찾아갔죠. 풍선이 떠 올랐어요. 적어도 풍선은, 날을 수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날을 수는 있으니까」

「나는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 그래도, 날아야지요. 그 이상의 것은 없으니까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린는 모르니까요」

인형이, 더욱 닫아지 그는 팔을 흔들었다. 나를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소. 어디까지나. 인형일 뿐이지. 바주머니에서 휘손수건을 꺼내더니 그는 뜰을 닦았다 알코을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당신에게는 모두가 인형이지 않은분도. 그렇지만 우리는 인형이 아니에요. 당신이나 인형일 뿐이지」

나를 쳐다보는 사내의 날카로운눈빛이 느껴졌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인형들의 식할 수 있을때 더이상 우리는 인형이 아니지요. 마치 파업이 피노키오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듯이」

파도소리가 들려왔다. 파도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아무도 없는 밤파제를 뜯까지 걸어갔었다. 완전한 어두움. 보이지 않는 파도의 부서짐이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었다.

「밖에 혼자 파도소리를 듣는 짓이 있어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내게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요. 아주 깊은 밤에들려라고 설명할수가 없어요.

사내가 일어섰다. 뛰라 말을 할듯하다가 뛰돌아 멀어지고 있었다.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흑날렸다. 햇빛속에 그가 휘청거리는듯이 느껴졌지만 나는 따라갈 수 없었다. 잘을 수 없었다. 마치 떠나는 나를 아버지가 잡지 못하듯이 개찍교회에 인생을 바친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잡을 수 없었듯이.

멀주일이 흘렀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할로윈을 고 나면 해변은 눈에 띄게 황량해졌다. 푸른 잎이 시든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바다는 시든는 신음이었다. 인자한 할머니의 울음도 찬란한 열매가 쓰여지고, 부처질 때까지 끊임없이 오히려 꿰꿰히 긴장했던 신경들을 이 풀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면 군. 그들이 내게 준 여미가 무엇이었을까. 확실 뿐이었다는 것은 속일 수 없었지.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집 떠나서 유난히 예민한 감수데 만난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런 게 혼한 일인가.

다. 하루의 일과처럼 되어버린 성당의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누가 다. 등을 두드렸다. 돌아보니 김선이었다. 풍선을 받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밝은 얼굴이었다. 다시 그러했던 나의 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계속>

이제 저 바다란 놈이 가진 것은 여름의 상처와 추억과 쓰레기와 인간의 배반뿐이네. 그러나 참 잘견디기도 하지.

朝鮮時代 寺院經濟研究

金甲周 著

未開拓 분야인 조선시대 불교의 敎團經濟 집중연구서인 「朝鮮時代 寺院經濟硏究」가本校 金甲周교수에 의해 出刊되었다.

조선초기 사원의 토지소유문제를 비롯하여 寺院의 農莊經營問題, 조선후기 승려의 경제활동 특히 승려의 土地私有問題, 사원의 蠶業問題, 특수 補寺機構인 補寺廓 등 사원의 특수한 經濟組織 운영 문제 등을 대상으로 한 이 硏究書는 官撰書, 私撰書, 事蹟記 私文書 등을 수집 이용하여 엮었다.

<同和出版公社刊·281面·값5,800원>

燃雲先生 華甲紀念文集

崔正鎬 外 編

本校 同門인 燃雲 李禹出先生의 華甲文集이 출판되었다.

宗敎人으로서, 敎育者로서 또는 文學家로서 六十 평생을 살아온 선생은 61년 朝鮮日報 新春文藝에 當選, 68년 慶北文化賞 受賞. 81년 한국시조시인협회 부회장등을 엮임, 그 業을 남기고있다.

側近門人과 同學후배들로 구성된 刊行委員會에서 편집한 本 文集은 <祝祠> <祝詩> 작품집 <鍾壺>등 총6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後記에서 「선생의 人品이 一片銀匙이라도 世上에 稟露코자 하며 人品이 많은 後學들에게 考範이 되길 바란다」고 적고있다.

<新興印刷所刊·321面·비매품>

철학사 강의

東京大學出版會 編
한들 편집부 譯

현대철학의 기초적인 원칙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 시도한 「철학사 강의」가<한들총서14>로 出刊되었다.

기존의 다종다양한 哲學流派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등시에, 자기 스스로옵게 철학할 수 있도록 철학의근본문제를 일목요연하게 구명하고 그것을 통하여 현대철학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本書의 목적이자 동기인 것이다. 혼란과 고민에 빠진 현대인의 행동에 기초논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출판한울刊·349面·값3,800원>

새책안내

在선지부 동창회장

崔贊基 동문과 함께

"후배들의 유학 도울계획"

奬學基金도 조성중

현지 東國人 불과 20여명

崔贊基同門은 在美 동문과 佛敎學徒들에 관심을 돌하다고 재차강조하고 잘은보로지만 現 동창회 장이기도한 崔동문은 서독 유학생들의 현황에 대해 「희원이라야 아직은 東독일정착은 거의 나 현재는 대여하는 형식으로 가능할도하다니 어려운 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5·26년전 학창시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

인터뷰

『人間해서 善惡樂처장과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구라파 쪽 大學을 중심으로 실정이 어떠한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고 崔동문은 서슴없이 「국제경쟁 시대에 뒤지지 않고 대처해 나 學이 佛敎學徒들에 관심을 가지기위해 本校가 독일 東독일정착은 거의 나 현재는 대여하는 형식으로 가능할도하다니 어려운 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5·26년전 학창시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

崔동문은 서독유학에 앞서 1955년 계명대학교 학보사에서는 개교30주년기념 제4회 계명문화상 작품모집을 한다. 대학생들의 활발한 창작활동과 연구풍토조성을 위해 마련된 계명문화상은 전국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모집부문은 시(시조포함) 단편소설, 문학평론, 희곡등이며 당선과 가작 한 구절씩을 뽑는다. 정년은 대학부 1030년지 계명문화상 보(우편번호 634)

文化短信

제3회 계명문화상

李樂鶴 조각전

30일까지 朴麗淑화랑서

현재 이탈리아 유학중인 조각가 李樂鶴씨가 현지에서 제작한 조각작품 20여점을 보내와 30일까지 알구점동 「朴麗淑화랑」에서 조각전을 연다. 이번 전시작품은 연단전게 된 「그림·이혜경」 「글·김기주」 「사이」 「그리움」 「그림자」